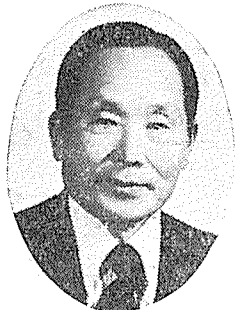


73-12월



科學韓國의 雄志를 契機라던

—오늘의 산 敎訓으로 來日의 榮光찾아야—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회장 金允基

癸丑年도 우리 科學技術界에 새로운 里程碑를 세워놓고 이제 그 幕을 내렸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 科學技術人들에게 뜻깊은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에너지 波動 등 多岐多樣했던 國際情勢는 우리에게 적잖은 자극을 주었으며 더욱이 政府의 科學技術政策과 이에 따른 施策은 우리에게 科學韓國의 百年大計를 구축할 수 있는 活力素의 役割을 해주었다고 하겠습니다.

科學技術의 振興發展은 우리 모두가 항상 念願하는 소중한 課題인 것입니다.

그러나 有感스럽게도 未洽했던 지난해의 制度와 其他與件 등으로 우리 科學技術人은 所期의 目的達成에 크게 寄與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科學技術이 하루 아침에 向上發展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연구와 이에대한 추적이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長期의이고 적절한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風土造成은 지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행하게도 우리는 이제 科學韓國의 雄志를 펼 수 있는 契機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憲政史上 처음으로 이러한 保障을 받게 된 것이며 지난해는 序幕을 장식한 첫해였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科學界活動相은 그 어느때 보다도 活氣에 차있고 또 進取의인 面을 보여주었습니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한다면 國際間的 學術交流도 폭넓고 깊게 展開해 나갔으며 國內에서의 學術活動도 各分野別로 多樣하게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各種 研究機關의 진지하고 活潑한 研究事業推進은 우리의 當面課題인 產學協同體制確立을 促進하는 結果를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우리 6만 科學技術人의 聯合體인 科總聯의 지난 1년간의 活動은 매우 鼓舞的이었다 하겠습니다.

繼續事業으로 벌여온 科學技術센터는 政府와 贊助會員 및 會員들의 協助와 支援으로 地下 1層 地上 9層의 骨造 工事를 끝냄으로써 드디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豫定대로 새해에는 內粧工事를 마치고 모은 우리 科學技術團體가 한 지붕 밑에서 科學技術振興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確信하는 바입니다.

지난해는 또 重化學工業研究會를 신설 政府의 重化學工業政策을 側面에서 支援했으며 각종 세미나를 열어 當面 課題解決과 未來像을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地方特產物 및 農家工產品技術開發조사연구, 각연구기관의 연구능력실태조사, 工科大学 教育제도 개선과 產學協同을 위한 기본조사연구, 科學技術용어 제정사업 등을 展開 많은 實績을 올렸습니다.

특히 우리 科總聯은 새마을技術支援活動을 展開 農漁民의 所得增大과 汎國民科學化운동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 모든 事業遂行에 參與한 科學技術人은 지난 한해 동안 1千여명, 計劃대로 各種 事業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게 된 것은 會員여러분의 情誠어린 協助라 생각할 때 더욱 感慨가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問題도 總和와 團結된 힘만 있으면 能히 解決할 수 있다는 산 敎訓을 여기서 다시 한번 體驗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산 敎訓을 거울삼아 에너지 打開策 등 山積한 課題들을 解決하고 向上시켜 榮光을 찾는 術기를 한다고 믿습니다.

다약오는 새해에는 지난해에 터득한 산 知識을 土臺로 더 큰 課題들을 풀어 科學技術振興에 寄與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江湖諸賢과 會員여러분의 家庭에 榮光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